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부활 제5주일, 생명 주일
2021. 05. 02. (나해) 제2266호

대구주보



무태성당
2021. 따뜻한 봄날에
그림
Bernard 2020

무태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사도 9,26-31 **화답송**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제2독서** 1요한 3,18-2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5,1-8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내 안에 머물러라

대구정신병원장 | 서준영 요한 신부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곁에’도 아니고 ‘당신과 함께’도 아닌, ‘당신 안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되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 안에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머물면서 당신의 생명을 얻어야만 제대로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은 당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이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엄청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머무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무르면서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 기쁨과 평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필요**

꿈을 로스팅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 아래의 글은 취재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꿈을 로스팅하고 행복을 블렌딩하는 바리스타 윤명열입니다. 매일 아침 7시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¹⁾에서 생활해오다가 최근 아담한 집을 장만하여 독립한 초보 자취생이기도 합니다. 저의 일터는 많은 신자분이 찾아오시는 성모당 안의 '카리타스 카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만 18세가 되어 시설 퇴소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의 홍보물을 보게 되어 직접 남구 보금자리를 찾아가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는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입소 후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평소 일하고 싶던 카페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산보호작업장²⁾에서 운영하는 '카리타스 카페'에는 저를 포함하여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커피가 맛있다고 하실 때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몇 번의 도전 끝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 최초로 장애인 매니저가 되는 것입니다. 번번이 입사 면접에서 떨어져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는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2년 뒤쯤에는 좀 더 큰집으로 이사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하게 독립을 서두르기보다 계획을 잘 세우고 천천히 준비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카리타스 카페'에 오시는 모든 분이 행복 청년이 만드는 향긋한 커피를 드시면서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꿈을 로스팅하고 행복을 블렌딩하는 바리스타입니다. ☕



카페 카리타스 바리스타 | 윤명열

* 이번 호 대구주보와 텀블러(개인컵)를 가지고 성모당 내 '카리타스 카페'에 가시면 아메리카노 1잔을 반값에 드실 수 있습니다. (~5/31까지)

1)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는 지적장애인가정주거시설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학산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작업활동과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독립을 지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 43,5)

유천본당 | 박춘식 세실리아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사랑하는 세 남자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낸다.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외닿는 구절을 출근하는 두 아들과 남편에게 문자로 보내고 있다. 결혼을 해서 타지역으로 출가를 한 아이들의 빈자리를 달래고 연결고리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중단할 수 없었던 문자 보내기가 어느덧 습관이 되었다. 처음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는 의아스러웠는지 “엄마, 왜?”라는 답장이 왔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말씀 안에서 아침마다 만나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하루를 보냈으면 한다.”라고 하니 그제야 내 뜻을 이해하고 아이들도 정말 고맙다고 한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복사를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반까지 한주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다. 심지어 고3 수능 시험 전날 미사까지도 복사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던 아이들이 엄마가 보내준 복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직장 동료로, 선후배로서의 수많은 인간관계와 남편과 아빠로서 책임져야 할 무수한 일들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보내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5)는 말씀을 반복하고 되뇌면 마치 주님께서 살며시 안아주시는 기분을 느낀다는 남편. 그 또한 늘 감사함 속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말씀이다.

어쩌다 같은 시간에 성경 말씀 문자가 오지 않으면 먼저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하고 전화가 온다. 남편도 문자 오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오늘 복음 말씀 주세요!”하고 연락이 온다. 말씀으로 아침마다 우리 가족이 연결되고 소통하며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 집안에 1순위임을 다 알고 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가족, 언제까지나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저희 가족이 푹푹 뭉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의 말씀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아멘!”

※ 본 내용은 2021년 대구주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공모 당선작입니다. 

‘대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정득(金丁得) 베드로는, 충청도 홍주의 대흥 고을에서 탄생하여 친척인 김광옥 안드레아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이후 그가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베드로는 안드레아와 함께 교회 서적과 성물만을 지닌 채 공주 무성산으로 들어가 숨어살면서 오로지 교리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탓에 포졸들이 쉽게 그들의 종적을 찾아내고 말았다. 이후 베드로는 홍주로, 안드레아는 예산으로 각각 압송되었다.

홍주 관장은 김정득 베드로가 끌려오자마자 그를 배교시키기 위해 엄한 문초와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얼마 후 베드로는 감사의 명에 따라 김광옥 안드레아와 함께 청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형벌과 옥중의 고통을 견디어냈으며,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8월 21일(음력 7월 13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그들의 고향인 예산과 대흥으로 압송하여 참수하라’는 명령이 덧붙여졌다. 당시 베드로에게 내려진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국가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는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중에 숨어살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의 속여서 유혹하였으며, 형벌과 문초를 가하여도 아주 모질어서 굴복하지 않았다. 그 죄상을 생각해 보니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김정득 베드로
(? ~ 1801년)

예산까지 내려오는 동안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그동안의 형벌로 인해 걸음을 뗄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이 주신 용기와 힘으로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손을 마주 잡으며 “내일 정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라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베드로는 예산에서 얼마를 더 가서 대흥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이튿날 읍내로 끌려나가 칼날 아래 목숨을 바쳤으니, 그때가 1801년 8월 25일(음력 7월 17일)이었다.

2021년 제11회 생명 주일

생명을 존중하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중** 주교의 **생명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와 같은 기존 신앙 체험 내용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일상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분량 준수)

기간 및 방법 | 2021년 6월 11일(금)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접수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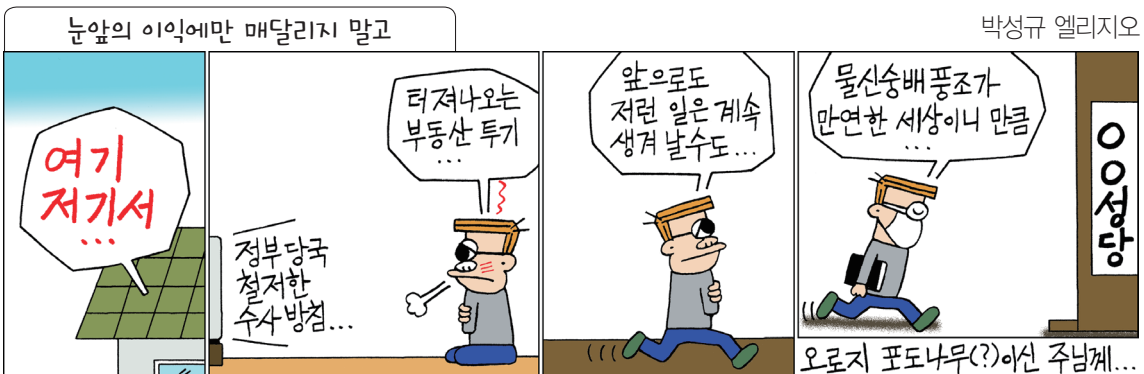
6. 말씀에 비추어 보기 5

시편 128(127)편에 나오는 목가적인 모습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쓰라린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또 그 삶과 사랑의 내밀한 친교를 깨뜨리는 고통과 악과 폭력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추상적 생각의 나열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에 위로가 되고 그 여정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 말씀은 가정들에게 그 여정의 목적지를 보여 줍니다. (『사랑의 기쁨』 19-22항)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5월 3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8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3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답: 상시 / 장소: 서울 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성소자 개별 만남 및 상담

대상: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5.8~9 / 6.12~13

3박 4일: 6.4~7 / 7.8~11

8박 9일: 5.17~25 / 6.25~7.3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5.16~19(추자도) / 5.22~24

5.28~30 / 6.7~10(추자도)

6.13~16(추자도)

신청: (02)773-1463

(064)756-6009

젊은이 몸 신학 피정

일시: 5.21(금)~23(일) 2박 3일

장소: 평창 라베르나 기도의 집

대상: 40세 이하 청년 / 회비: 8만원

주최: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문의: (010)5313-0241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피정

일시: 5.23(일) 10:00~17:00

장소: 부산가톨릭신학대학

대상: 35세 미만 여성 / 회비: 5천원

주최: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문의: (010)9610-5366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 관계망 서비스)

홈페이지 | 교구장 및 보좌 주교, 교구 사제단, 교구청 부서 안내, 교구 내 본당, 기관, 단체 등 각종 현황, 주요 소식 등 교구의 모든 정보 수록 ⇨ www.daegu-archdiocese.or.kr

교 구 앱 | 교구장, 보좌주교 동정 및 말씀, 교구 사제 및 본당 정보, 각종 기도문, 매일 미사, 대구주보, 교구의 주요 소식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대구대교구」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성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 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아)

☎ (053) 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 칼럼 연재중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3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신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족부 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공장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불박이,신발장,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O10-2866-0277 | O10-3336-9567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루해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축 확장 이전 —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증정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욱 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의 서 재 신 (베드로) · 장 주 현 (비바나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최호철(안토니오) 신부
2017년 5월 2일
- 박재수(요한) 신부
1983년 5월 5일

행사 | 모임

바오로딸 조각초 전시

일시: 5.18(화)~30(일)
클래스(30일) 기도초 만들기 14:00
작가: 잠자는 성 요셉 작가 김유리
주제: 품 나에게 오너라. 너희에게 안식
을 주겠다. / 클래스는 사전 신청
문의: (010)6681-518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5.9(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24~40세 신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교육 | 모집

2021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5.3(월)~14(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주일 성령묵상회(3주 과정)

일시: 5.9~23 매주 일 9:30~18: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비용: 12만원
문의: (010)9045-0191

수지에니어그램 모집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리어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5.15(토) 10:00~17:00
문의: 남대영기념관, (010)8682-4237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7.17(토)~8.14(토) 4주
설명회: 5.22(토) 14:00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성가양로원(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 가는 길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산책로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남자 어르신도 가능)
문의: (054)974-8122 / (010)6485-7796

미혼모의 따뜻한 보금자리 인천자모원 모집

출산, 건강회복, 자립지원 무상제공
학생 미혼모를 위한 바다의 별 대안학교
문의: 인천교구 자모원, (032)772-0071

채용 | 안내

감천리 묘지 분묘 신고 및 이장 안내

학산공원 개발사업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감천리묘지」
분묘 연고자는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 및 이장 협의 바랍니다.
문의: 대구도시공사 공원조성사업단,
350-0342~7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
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WHISEN 시스템에어컨
영화공조시스템
시스템에어컨 판매 및 설치
아파트(입주, 이사, 거주 가능)
전원주택, 상가 천장형에어컨
010-8857-6781 johnksk@hanmail.net
대표 김 광 수(세례자요한)

발아 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 평발, 깔창 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별첨친구)
수집구 함곡대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퍼엘)
장주희(헬레나)
백 내 장수 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한국성지 167 완주
(주)미카엘여행사 Michael Tour
6.21(월)~6.27(목) 춘천, 원주교구
7.19(월)~7.22(목) 대전교구
제주성지순례 3일/4일
5.17(월)~5.20(목) 5.31(월)~6.2(수)
6.4(금)~6.6(일) 6.7(월)~6.9(수)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前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당뇨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틀·무항기
주열가·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물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가·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